기성용 한혜진 두달째 열애

metro

메트로

2선발 류현진 3일 ML데뷔전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여행 중 잠시 휴식 중인 부부

1년 430만원으로 9년째 자전거 세계여행

기후변화 심각성 알리는 스테니 마탄코바·리차드 퍼지 부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9년째 자전거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 스테니 마탄코바(46·여), 리차드 퍼지(43) 부부. 최근 티베트 여행을 마치고 중국에서 숨을 돌리고 있는 두 사람은 "날이 갈수록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여행이 불가능해진다"며 걱정을 내비쳤다.

2007년 9월 서울을 방문 시 메트로신문과의 첫 번째 인터뷰에서 두 사람은 중국 못지않은 교통 체증과 매연, 수질 오염 상황에 깜짝 놀랐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푸근한 인심과 맛깔스러운 음식, 신비로운 문화재에 반했다며 한국에 꼭 다시 오겠다고 했다. 26일 두 바퀴 환경전도사 부부를 e-메일 인터뷰로 만나봤다.

◆9년째 자전거로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 건가.

2004년 12월부터 8년2개월째 페달을 밟고 있다. 사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1차로 자전거 세계 여행을 했기 때문에 다 합치면 10년이 넘는다. ▶기사 4면에 계속

/조선미기자 seonmi@

<포털서 활동하는 공동구매 카페 블로그>

돈만 먹고 튀는 몹쓸 '사다드림'

사업자 주소·전화번호 공개않고 '지하경제 영업'
싼맛에 덥썩 상품 구입했다 환불안돼 피해 속출

#1 임신 7개월째인 윤이슬(가명)씨는 유럽산 명품 유모차를 싸게 살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유명 포털의 공동구매 카페에 가입했다. 이미 같은 물건을 산 사람들의 호의적인 구매 후기가 줄을 잇고 있었을 뿐 아니라 상세한 제품 이미지 노출, 병행수입허가증까지 볼 수 있어 카페 주인에게 70만원을 송금했다.

그런데 제품은 약속한 날을 지나 일주일이 되도록 오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게당 기피를 둘렀지만 '카페가 폐쇄됐다'는 문구만 남아있었다. 공동구매 신청으로 들어온 적지않은 돈을 카페 주인이 들고 사라진 것이다.

#2 건강식품으로 유명한 블로그에서 마늘 엑기스 상품을 구입한 김지원(가명)씨는 물건을 받은 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유효기한이 3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어 김씨는 블로그 운영자에게 연락해 "유효기한 여유가 있는 제품으로 다시 보내주거나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2주가 되도록 제품은 오지 않았고 재차 운영자에게 전화를 한 김씨는 "없는 번호이니 다시 한 번 확인하라"는 통신사 측 메시지밖에 들을 수 없었다.

온라인에서 장사를 하면서도 사업자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기본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한 카페·블로그가 대거 적발됐다.

현재 구매나 쇼핑 키워드 검색 시 파악되는 카페·블로그는 네이버 6만4000개, 다음 3만5000개로 추산되는 만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실제 카페·블로그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1년 615건에서 지난해 720건으로 늘었다.

◆사이버 보따리상 3000곳 적발

공정위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의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점검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법 위반으로 시정 권고를 받은 카페·블로그가 3069곳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고는 2611곳, 이용 제한 조치는 426곳이다.

이들은 대부분 신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하자가 있는 상품의 환불을 거부한 카페·블로그도 적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에 제품을 올려놓고 고객의 주문을 받아 파는 이른바 '사다드림' 블로그는 2558개다. 이러한 블로그가 급증하면서 구매 후 연락 두절 등의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도 커졌다.

문제는 카페·블로그 운영자가 돈을 들고 사라지는 이른바 '먹튀'를 했을 때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이 경우 포털에 하소연해도 시어버수사대 연계 등 간접적인 도움만 받을 수 있다.

포털 관계자는 "평소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지만 사고가 생기기 전에는 불법 행위를 알 수 없다. 에스크로(구매안전서비스) 결제가 되는 곳을 이용하는 게 현재로선 최선"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3700억 복권 당첨… "그래도 계속 사겠다" 파워볼 1등 당첨자 페드로 케사다(44)가 27일 미국 뉴저지 복권 본사에서 기자회견 중 당첨금액이 적힌 수표 모형을 들어 보이고 있다. 도미니카출신 미국 이민자인 케사다는 파워볼 복권 1등에 당첨돼 3억3800만 달러(약 3750억원)를 손에 쥐게 됐다. 그는 계속해서 복권을 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AP 연합뉴스

'겨울연가' 넘어서는 '그 겨울, 바람이 분다' K드라마 최고가로 일본 수출

일본에 '그 겨울' 강풍이 몰아칠 기세다.

SBS 수목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가 일본에서 침체된 K드라마 시장을 되살릴 기대작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 드라마 최대 수입사이자 콘텐츠 제작·유통회사인 일본의 포니캐년은 일찌감치 현지에 불어닥칠 '그 겨울' 신드롬을 예감하고 판권을 사들였다. 정확한 수출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역대 한국 드라마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5회 오키나와 국제영화제(23~30일)가 각국의 우수 콘텐츠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한 콘텐츠 비지에서는 참석자들 사이에서 '그 겨울'이 가장 큰 화제였다. 현지에서 만난 국내 한 관계자는 26일 "'그 겨울'이 제2의 '겨울연가'로 평가받고 있다"며 "일본 안방극장에선 보기 드문 가슴 시린 멜로, 조인성 송혜교가 빚어내는 시너지 효과 등을 이유로 '겨울연가'와 비교된다"고 귀띔했다.

'겨울연가' 이후 다양한 콘텐츠가 공급되면서 한류 소비층은 확대됐지만 주요 소비 계층으로 이른바 '큰손'으로 불리는 중장년층 여성들은 한국 드라마에서 점차 발을 뺐했다. 2006년을 기점으로 편당 수출가는 하락하고 한류스타가 불연에는 드라마조차 외면받기도 했다.

'그 겨울' 제작사 관계자는 "일본 원작 드라마 '사랑따윈 필요없어, 여름'이 2002년 일본 TBC에서 방영된 당시 수많은 골수 팬을 만들어내며 큰 인기를 얻었다"며 "당시 팬들을 비롯한 일본의 중장년 여성들 사이에는 '겨울'을 배경으로 재해석된 '그 겨울'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오키나와=유순호기자 suno@

"너무 성급했나" 성접대 의혹 수사 주춤

경찰의 성접대 의혹 사건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졌다.

27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던 동영상의 성문(목소리 지문) 분석 결과가 나온 25일 이후 수사는 소강 국면에 돌입했다. 전날 경찰 관계자의 "성접대를 받았다고 해도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수사의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 곤경에 처한 현 상황을 대변한다.

대가성 입증을 위한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경찰이 관련 인사들 간의 관계 규명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유력 인사의 성접대 연루 의혹을 밝히는 부분에서 지나치게 의욕을 보이다 수사가 미궁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성접대에 동원됐다는 여성이 최근 진술을 번복한 점도 부담이다.

사정 당국의 한 관계자는 "경찰의 섣부른 내사와 수사가 결국 추문만 키웠다"며 "뒷감당하려면 만만치 않은 상황일 것"이라고 촌평했다.

/박동호기자

또 뒤집힌 '시신없는 살인'

1심 유죄→2심 무죄→3심 파기환송→부산고법 '무기징역' 유죄 선고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의 피의자에게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7일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노숙인을 살해한 뒤 화장하고,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속인 혐의로 기소된 손모(43·여)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손씨는 2010년 6월 16일 노숙자 쉼터에 거주하던 김모(26)씨를 취업을 알선하는 것처럼 속여 부산으로 데리고 왔다. 다음날인 17일 김씨는 손씨의 차 안에서 사망했으며 손씨는 이미 숨진 김씨를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 자기가 사망한 것처럼 접수한 뒤 곧바로 김씨를 화장해 유골을 바닷가에 뿌렸다.

검찰은 손씨가 사망보험금 지급, 질식사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점과 김씨의 시신에서 구토 등의 흔적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손씨가 김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손씨는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했으며 인터넷에서 독극물 등을 검색한 것은 자살할 방법을 알기 위해서였다"고 항변했다. 또 김씨가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지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했지만 살해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체은닉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범행 방법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돌연사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로 판단한 데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흠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박동호기자 eleven@metroseoul.co.kr

빛나는 힐 올 봄 미녀들의 다리판 빛이난다. 2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모델들이 '슈퍼아보니' 브랜드 론칭 10주년 기념으로 전시된 '스와로브스키 라인'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 & 뉴스

서울 석유소비량 강남3구가 3분의 1 차지

● 서울의 석유 소비량 가운데 3분의 1을 '강남3구'가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가 내놓은 '서울시 구별 석유 에너지 소비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전체 석유 소비량은 3912만8836배럴이었다. 소비량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서울 전체의 16.5%인 645만7265배럴을 사용했다. 2위는 용산구였으며 서초·영등포·송파구가 뒤를 이었다. 강남 3구의 소비량을 합치면 전체의 29.3%였다.

/박동호기자

첫 국립외교원 입학시험 경쟁률 21.7 대 1

●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국립외교원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경쟁률이 평균 21.7대 1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11~14일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45명 선발에 975명이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일반외교 분야가 28.8대 1의 경쟁률로 가장 높았고, 외교전문 분야는 3.8대 1의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성별로는 여성이 65.8%로 더 많았으며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26.9세였다. 한편 외무고시는 올해 47기를 마지막으로 폐지된다.

/박동호기자

제2서해안고속도로 오늘 개통
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5시 평택~시흥 제2서해안 민자고속도로를 개통한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역 광장서 이동결핵검진

부산시는 제3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결핵예방 및 조기퇴치를 위해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부산역 광장에서 결핵예방캠페인과 이동결핵검진에 나설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핵예방캠페인은 '결핵에 밝은 생활이다'를 슬로건으로 부산역 광장 일원에서 부산시 및 보건소 담당자, 대한결핵협회 남부지회 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이들은 부산역 주변에서 가두 캠페인을 벌이면서 결핵 관련 개인별 상담 및 이동 흉부엑스선촬영과 판독을 해 주고 기념품도 나눠줄 예정이다.

안락동 '의사의 숲' 내달 착공

동래구는 다음달부터 안락동 안락교차로 일대 2만㎡에 1만4000여 그루의 나무와 잔디로 녹음쉼터와 어울광장을 갖춘 도시숲 조성공사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의사의숲'으로 명명된 이 도시숲은 지난해 초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그해 3월부터 8월까지 현상공모를 거쳐 최우수작을 선정, 올해 1월 주민설명회를 열었고 지난 2월에 공사 계약을 완료했다.

선정된 작품은 도시와 자연,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숲 조성을 기본 구상으로 한다. 총 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이번 공사는 오는 7월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있다.

슬로산복커뮤니티 활동 돌입

부산 동구지역 산복도로를 거점으로 펼치는 주민 자율 재생단체인 (사)슬로산복커뮤니티가 올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마을 주민 마을 활동가, 문화예술인 등이 함께 추진하는 슬로산복커뮤니티가 환경부의 '2013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공모'에 선정돼 '산복도로 새싹들이 꽃이 되다'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마을지킴이 본부는 주민사업기획회의 개최, 월간 소식지 및 책자 발행, 전담 코디네이터 활동 등 마을만들기 사업 기획 및 활동을 통해 새싹프로그램, 햇살프로그램, 텃밭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총괄편집인	남윤호
사장 편집인	김충직
편집국장	조민호
부산지사장 취재	김승훈
서울광고문의	(02)721-9351 3
부산광고문의	(051)558-2100
독자센터	(02)721-9862

2002년 5월 21일 창간 2002.5.3월 등록번호 문화가 00117

공직자 작년 재산 평균 4700만원 ↑

시, 구·군 의원 등 186명 변동사항 공개… 김부근 13억 7000만원 증가 '최고'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시 공직자 중 16개 구·군 의원 180명, 공직유관단체장 6명 등 재산 공개 대상자 186명의 재산 내역과 변동 사항을 27일 공개했다.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공개 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5억 5000만원으로 개별 신고액은 전년 대비 평균 4700만원이 증가했다.

186명 재산 공개 대상자 중 재산 증가자는 143명(76.8%)이고 재산 감소자는 43명(23.2%)으로 나타났다.

16개 구·군의회 의원 중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는 강서구의회 김부근 의원으로 13억7000만원이 늘었다. 이어 중구의회 최윤근 의원 12억9000만원, 사상구의회 명두명 의원 8억5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직자는 사상구의회 이재우 의원으로 14억4000만원이 줄었고 사상구의회 황성일 의원 5억6000만원, 사상구의회 심재환 의원 4억70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개 자료에 의하면 공개 대상자 중 사상구의회 심재환 의원이 43억1000만원으로 최고 재산 보유자이고 이어 해운대구의회 이상기 의원 42억1000만원, 사하구의회 한정옥 의원 31억6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6개 공직유관단체장 중에서는 벡스코 김수익 대표이사가 전년보다 8700만원이 늘어난 10억6650만원을, 부산도시공사 이종철 사장이 6800만원 증가한 9억2332만원을, 부산시설공단 이용호 이사장이 1억6358만원 증가한 5억3376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부산교통공사 박대수 사장은 1280만원 늘어난 5억3728만원을, 부산테크노파크 안병만 원장은 2990만원 증가한 6억2354만원을 신고했다. 부산환경공단 이철형 이사장은 1억2390만원의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했지만 재산 총액은 총 1억1491만원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증가 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 저축과 사업소득 증가 등이며, 감소 요인은 생활비·교육비 등 가계지출 증가와 고지 거부, 친족 사망으로 인한 신고 제외 등으로 파악됐다.

한편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 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성실신고 여부와 재산 형성 과정을 심사해 부정한 재산 증식이 있는 경우 심사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김수이 기자 ksm@metrobusan.co.kr

신발에 별이 달렸네 27일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3층 구두 매장을 찾은 여성들이 별 모양 스터드 장식이 가미된 플랫슈즈를 고르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경마 명예심판위원 공개모집

KRA 부산경남경마공원은 경마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심판 업무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명예심판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4월부터 연중 상시로 모집하며, 일요 경마일에만 명예심판위원제도를 운영한다.

부산·경남권역에 거주하는 경마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KRA 홈페이지(www.kra.co.kr) 및 부경경마공원 관람대 종합안내데스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명예심판위원의 주요 업무는 실해 심의, 출발 순위 판정 등의 업무 참관이며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주요 경마 시행 부서를 견학하는 기회도 부여된다.

단 명예심판위원으로 참여하는 당일에는 공정성을 위해 마권 구매는 할 수 없다.

문의: 051)901-7332

최동원 선수 동상 건립 탄력

부산은행 후원식 가져… 5000만원 기금 마련

부산은행이 고 최동원 선수의 동상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키로 해 부산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함께 동상 설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부산은행은 고 최동원 선수를 기리고 부산 야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27일 오전 9시30분 동구 범일동 본점에서 롯데 김시진 감독과 고인의 모친인 김정자 여사, 권기우 (사)최동원 기념사업회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 최동원 동상 설립 지원' 후원식을 가졌다.

후원금은 27일부터 판매되는 '2013 가을야구 정기예금'을 가입하는 고객 1명당 은행 비용으로 3000원을 적립해 총 5000만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은행 측은 지난해 가을야구 정기예금의 가입 고객이 1만8000여 명이고 올해는 소액 가입자도 많을 것으로 보고 있어 5000만원의 후원금 충분히 모일 것이란 입장이다.

한편 (사)최동원 기념사업회는 지난 2011년 '최동원 기념 야구박물관 건립 범시민 추진위원회'로 출범한 뒤 지난해 8월 (사)최동원 기념사업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시민들의 성금과 함께 총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안에 사직야구장 정문 쪽에 최동원 기념 동상을 건립할 계획이다.

에어부산 홍콩노선 주 5회로 증편

에어부산은 오는 31일부터 부산~홍콩 노선 운항 횟수를 현행 주 3회에서 주 5회로 늘린다고 27일 밝혔다.

2011년 5월 부산~홍콩 노선을 취항한 에어부산은 지난해 7월 국적 항공사 최초로 부산~마카오 노선을 취항하며 부산~홍콩 노선과 함께 '부산~홍콩~마카오~부산'의 새로운 상품을 구성했다.

이번 부산~홍콩 노선 증편을 통해 홍콩 주 5회(화, 수, 금, 토, 일요일) 운항, 마카오 주 2회(월, 목요일) 운항으로 매일 운항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돼 홍콩과 마카오를 동시에 찾고 싶은 고객들에게 최적의 스케줄과 편리함을 제공하게 됐다.

홍콩과 마카오는 페리를 이용하면 1시간 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고, 비슷한 듯하면서도 서로 다른 각각의 독특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금요일 밤 홍콩으로 출발하는 에어부산 항공편으로 홍콩 관광 후 페리를 이용해 마카오로 이동, 마카오 관광 후 월요일 새벽에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하면 주말을 이용해 알찬 여행이 가능하다. 직장인들도 휴가를 따로 내지 않고도 홍콩과 마카오 관광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 오피스텔

명지 삼정그린코아 웨스트 29일 그랜드 오픈

명지의 첫 오피스텔, 산업단지, 명지국제신도시 등 4,215개 기업체 부산 최대 특급 배후수요

서부산권 오피스텔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업체인 (주)삼정이 명지지구에 오피스를 단일 규모로 부산 최대인 846세대를 오는 29일 분양한다.

27일 (주)삼정에 따르면 명지 삼정그린코아 웨스트(we1st) 라는 브랜드로 선보이는 이 오피스텔은 호텔형 비즈니스 오피스텔로 꾸며진다.

웨스트(we1st) 는 서부산을 의미함과 동시에 최고 최초 최대의 의미를 나타내는 we 1st의 뜻을 담고 있다.

명지 삼정그린코아 '웨스트(we1st)'의 가장 큰 장점은 부산진해자유구역청(BJFEZ)을 비롯한 인근 서부산 산업단지 약 4200여 기업체의 임직원 여성 가구 연구원 외국인 종사자 등의 풍부한 수요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삼정측은 설명했다.

(주)삼정 관계자는 "이 일대에 들어설 동남권 연구개발특구는 대통령이 발표한 국내 유일 신약연 연계 해양중심 클러스터 지구로 11조 경제 편익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첨단산업 국제물류 주거 등이 포함된 첨수복합도시인 에코델타시티에 총 4만 3000여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며 "특히 명지국제신도시 신호산업단지 화전산업단지 녹산국가산업단지의 배후수요를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전 세대에 2구 가스 쿡탑 렌지후드,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세탁기 붙박이장 등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것은 물론 보일러실에 접이식 빨래 건조대가 설치되고 현관 디딤판은 천연 화강석 마감재를 사용한다.

한편 이 오피스텔은 싱글족을 위한 툴 옵션의 스마트한 공간인 A타입과 커플 및 소규모 가족을 위한 유연성 있는 공간인 B타입으로 나뉜다.

A타입은 화이트 컬러와 아쿠아 블루의 믹스매치로 청량감이 깃든 미니멀한 공간으로 연출할 계획이며 B타입은 미래지향적이고 신비로움이 느껴지는 에메랄드 그린 컬러와 모노톤의 믹스매치로 설계하고 고급스러운 공간으로 연출할 예정이다.

특히 편대인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도 3개의 층으로 구성돼 대규모 헬스장 실내 골프장 야외 피팅장 24시간 개방형 코인세탁실 게스트룸 입주민 공용식당 소모임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게 된다.

커뮤니티 3개층 중 하나의 층으로 구성된 멀티존은 여유로운 카페 분위기 속에서 식사 주말 브런치를 즐길 수 있는 입주민 자율식당과 포켓룸 입주민 공동회의 및 소규모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미팅룸 등으로 구성된다.

또 친구, 친척 지인 등 외부 손님들이 단지를 방문했을 경우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게스트룸을 제공하며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코인세탁실을 운영한다.

멀티존 이외 두 개의 층은 골프존과 헬스존으로 골프존에 위치한 실내골프장은 스크린 골프가 설치되며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는 야외퍼팅장이 들어선다.

또 헬스존은 헬스장 및 GX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신 운동기구가 구비된다.

강정규 동의대학교 부동산 도시재생연구소 소장은 "서부산 지역은 개발이 완성되는 2020년이 되면 강서구 인구가 35만명으로 늘어나고 부산의 핵심 부도심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서부산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지중되어 있는 중대형의 아파트 공급에서 비즈니스형 소형주거공간의 공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삼정 관계자는 "삼정은 작년 한 해 동안 신화명 동원역 삼정그린코아에서 청약 경쟁률 18.4대 1 명지 오션시티 삼정그린코아 청약 경쟁률 45대 1의 성공적 분양마감을 한 후 다시 명지에 부산 최대의 오피스텔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호재 임대수요, 특급입지 단지규모, 명품생활 이라는 5대 특급가치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명지 삼정그린코아 웨스트는 오는 29일에 분양할 계획이며 부산시 자랑등록사업소의 한국선급(KR) 옆에 위치한다. 견본주택은 효산나교회 옆에 오픈한다. 문의 051)555-3030

▲ 커뮤니티 2층 (멀티존)

▲ 커뮤니티 3층 (골프존)

▲ 커뮤니티 4층 (헬스존)

고의 식품범죄 <최소> 3년형

조류독감 동물 등으로 음식물 만들어 팔면 엄벌

고의적인 식품범죄자에 대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추진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불량식품 근절 종합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광우병과 조류독감에 걸린 동물을 음식물로 쓴 경우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기존 제도를 식품범죄 전반으로 확대한 것으로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어린이·청소년의 불량식품 접근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다수 마련했다.

학교급식 위생 점검을 현행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기로 했으며 급식 재료 납품 불공정 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학교 매점에서는 앞으로 고카페인 음료를 팔지 못하게 할 전망이다. 식품이력 추적관리제는 우유·치즈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우선 적용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류리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T끼리 요금제' 나흘만에 20만명 대박

SK텔레콤의 가입자 간 음성통화 무제한 서비스 'T끼리 요금제' 가입자가 나흘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다.

27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지난 22일 출시한 T끼리 요금제의 가입자는 26일 기준 20만1200명으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새 요금제가 나오면 가입자가 늘어나기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데 T끼리 요금제는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T끼리 요금제는 3G 사용자나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가입자에게는 요금 면에서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T끼리 요금제로 변경한 가입자 대부분은 음성통화 이용량이 많은 고객들"이라며 "다른 할인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하면 통신비 절감액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김문희기자 unique@

스마트폰이 이젠 주치의 27일 서울 을지로 SK T타워에서 관계자들이 SK텔레콤·서울대병원의 조인트벤처 헬스커넥트가 출시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헬스온'을 선보이고 있다.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과 손목·허리 등에 착용하는 '액티비티 트래커'로 개인의 운동량과 식사량을 측정·분석해주는 것이 이 서비스의 특징이다. /연합뉴스

금감원에 '주가조작 수사권' 부여 검토

금융감독원에 주가 조작 등을 단속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주가 조작 엄단 주문 이후 청와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KRX) 등이 증권범죄 수사 시스템 개편을 위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특별사법경찰권을 금감원에 주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금융위나 금감원, 거래소 등이 주가 조작 혐의가 의심되는 사안이 발생하면 사건을 검찰로 이관해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 같은 시스템으로는 수사 의뢰 과정이 길어지면서 증거 인멸 등의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주가 조작 사건이 미세하면서도 촌각을 다투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금감원이 곧바로 자체적인 강제 수사를 벌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 같은 권한 부여에 대해 권한 남용 우려, 금감원 직원의 신분 전환, 검찰 지휘 등에 대해 부담을 느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배동호기자

법원 실수로… 10년 채워야 할 전자발찌 5년만 채웠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최소 10년이었어야 할 성범죄자가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때문에 5년 적게 선고된 1심의 오판을 유지하게 됐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원심 판결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게 한 조항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 상해)로 기소된 국가대표 권투선수 박모(22)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5년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20대 여성이 화장실에 가자 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려 기절시킨 후 성폭행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자 다시 때려 기절시키기를 수차례 반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원심은 5년간 부착을 명한 잘못이 있다"면서도 "피고인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부착 기간을 늘리는 것은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류리기자 grass100@

실전같은 훈련 27일 서울 한강 여의지구 일대에서 진행된 '한강 수난사고 관계기관 합동 훈련'에서 서울 소방재난본부 소속 119 특수구조단 대원들이 선박에서 헬기로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13-2-113호
(2013. 3. 8 현재)

재산형성의 지름길은 비과세! 종자돈의 시작은 재형저축

신한 세(稅)테크 재형저축

신한 세(稅)테크 재형저축 상품내용

- 가입자격 : 가입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며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고객
- 예금과목 : 적립식 예금[만기일시지급식 단리식]
- 계약기간 : 7년제
- 저축한도 : 분기별 최저 1만원 이상 300만원 이내
- 세율적용 : 7년 경과 만기해지시 이자소득세 감면 단, 농어촌특별세 1.4% 징수
- 중도해지이율 : 신규 후 3년 경과 전 중도해지시 – 정기적금의 중도해지이율 적용
  신규 후 3년 경과 후 중도해지시 – 기간별로 적용된 약정이율 적용
- 기본이율 : 신규 후 최초 3년간 신규일 당시 고시금리 적용
  ▶ 기본 연4.1%, 최고 연4.5%
  3년 경과 후 매 1년 단위로 이율 변동 적용
- 우대이율 : 신규 후 최초 3년간 최고 연 0.4% 적용

신한 S-Tech 카드 상품내용

- 신용카드 : 할인점/이동통신, 대중교통(버스/지하철), 전통할인 서비스 제공
- 체크카드 : 백화점/할인점 할인
- 재형저축 저축금액에 연동한 캐시백 제공 : 신용 +0.3%/체크 +0.2%

Nikkei (일본)
12493.79 (+22.17)

Hang Seng (홍콩)
22464.82 (+153.74)

Shanghai (중국)
2301.26 (+3.56)

Dow Jones (미국)
14559.65 (+111.90)

EXCHANGE RATE

달러	1110.50
엔(100)	1172.53
유로	1426.88
위안	178.80

가계·기업·정부 합산 빚 3600조 GDP의 3배 육박

국내 가계·기업·정부가 진 빚을 모두 합치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의 3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표를 보면 지난해 말 현재 가계, 비영리단체 및 비금융 민간기업, 일반정부의 부채 총액은 3607조3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인 1272조5000억원의 283%에 해당한다. 한은 관계자는 "해당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큰 수치"라며 "외환위기(1998~99년 227%)나 금융위기(2008년 274%, 2009년 278%) 당시보다 더 높다"고 말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의 급등은 2000년대 들어 경제 주체들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 따른 여파다. 정부(중앙+지방) 부채는 10년새 3.2배 늘고 비금융법인과 가계·비영리단체는 각각 2배 넘게 증가했다. 반면 명목 GDP는 이 기간 1.7배 성장에 그치어 '빚의 속도'에 못 미쳤다. /김형석기자 hkkim1@

곰TV2 '한국판 유튜브'로

인터넷TV 서비스 '곰TV'가 한국판 유튜브를 선언했다.

특히 인기 유료 동영상을 일정 기간 뒤 무료로 제공하는 파격 서비스를 선보인다. 곰TV를 서비스하는 그래텍은 27일 쌍방향 콘텐츠 '곰TV 시즌2'를 공개했다.

곰TV 시즌2는 이용자가 직접 찍은 동영상이나 보유 중인 동영상을 올려 다른 이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곰TV는 회사측이 방송과 영화 동영상을 유료나 무료로 제공하면 이용자들이 이를 선택해 시청하도록 해 왔다.

동영상은 2GB(기가바이트) 용량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자막 동시 인코딩 기능도 지원한다. 등록된 동영상을 편집해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친구와 공유할 수 있다.

아울러 그래텍은 유료콘텐츠 구입 전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해 미리보기영상과 다른 시청자의 평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료콘텐츠 구입자는 구매 영상의 일부분을 잘라내 편집하는 '타임튜 에디터'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다. /박상훈기자 zen@

멘탈붕괴 안돼! 직원님은 힐링중

커피강좌·손마사지·사내 '대나무숲'… 보험업계 '사원 기살리기' 눈길

경기 불황으로 금융사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보험업계 전망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평균 수명이 늘면서 연금보험 등 저축성 보험의 역마진이 우려되고, 보험 상품의 자생성이 약화되면서 매출 전망이 불확실해지는 것.

이처럼 대·외부의 악재 속에서 일부 보험사들이 직원들의 정신 건강을 챙기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직원의 심리적 안정, 정서적 만족감 향상을 위해 기업 자체의 독특한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지난 2월부터 임직원 대상으로 커피·음악·미술의 세 가지 주제로 오감만족 힐링 시리즈 강의를 진행 중이다. 회사 측은 힐링 시리즈 강의가 기존 진행해왔던 자기 계발이나 업무 관련 강의와는 달리 직원들의 정서적 만족감과 행복감 향상에 비중을 두고 기획했다고 밝혔다.

강의를 기획한 인사부 조은미 상무는 "직원들의 심리 건강은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의 힐링 파워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열린 강의를 채택해 조직 구성원의 창의적 사고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신한생명에서는 네일아트 자격증을 보유한 청각 중증 장애인을 직원으로 채용해 본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큐티클(네일 정리),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손마사지, 파라핀 케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여성 직원뿐만 아니라 남성 직원에게도 인기를 얻고 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현재 직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아서 고객들에게도 확대했다"면서 "결과를 종합해 앞으로 장애인 직원 채용도 늘릴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생명은 최근 사내 대나무 숲을 설치했다. 본사 건물 각 층과 엘리베이터 옆에 투명한 '대나무 숲 의견함'을 연중 상시 비치했다. 회사에 전하고 싶은 모든 의견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NH농협생명 관계자는 "접수된 의견의 유형별 조치 결과는 사내 게시판에 공지돼 나의 의견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원·달러 5.9원 상승 북한의 도발 위협과 우리 군이 한 때 대간첩 작전 태세를 강화했다는 소식에 환율이 상승했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는 전 거래일보다 5.90원 오른 1111.60원에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경기훈풍 솔솔… 슬슬 지갑 여나

중기 업황전망·소비자 심리지수 두달째 동시 상승

봄을 맞아 경기회복을 예상하는 중소기업과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1394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다음달 경기를 관측하는 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는 전달보다 3.4포인트 오른 90.6으로 두 달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SBHI가 기준치인 100 이상이면 다음달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많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업종별로는 비금속 광물 제품(82.9→96.3), 고무·플라스틱 제품(82.9→91.1) 등 17개 업종은 오르고 기타 기계·장비(91.5→84.4), 인쇄 기록 매체 복제업(84.7→82.2) 등 5개 업종은 하락했다.

고용 수준(94.1→92.7)은 하락해 중소 인력 부족 현상이 여전히 심화될 전망이다.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석 달째 상승세를 이었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CSI는 104로 전달보다 2포인트 올랐다. 이는 지난해 5월(10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현재경기판단 CSI는 73으로 여전히 낮았지만 전달 대비로는 4포인트 상승했고, 향후경기전망 CSI는 93으로 3포인트 올랐다. /김현정기자 hjkim1@

대기업 실적 양극화 '박리다매 클럽' 증가

잘나가는 상장 대기업 사이에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 '1조 클럽'은 줄어든 대신 '10조 클럽'은 늘었다. 일부 대기업은 많이 팔고 수익도 높아진 반면 다른 대기업은 치열한 경쟁 속에 박리다매를 해 이익이 박해졌다는 의미다.

2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의 12월 결산법인(금융업 제외) 중 연간 매출이 10조원을 넘어선 기업은 모두 38개사로 33개사였던 2011년보다 5개사가 늘어났다.

2011년 '매출 10조 클럽'이었다가 작년에 빠진 곳은 LG가 유일했고, 현대글로비스·한진해운·삼성엔지니어링·LG유플러스·이마트·대림산업이 새로 진입했다.

'영업이익 1조 클럽'은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작년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은 업체는 18개사로, 21개사였던 전년보다 줄었다.

CJ와 LG전자 2곳이 신규 진입했지만 S-Oil·롯데케미칼·현대제철·OCI·대우조선해양 등 5개사의 영업이익은 1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양경식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영업이익이 줄어든 기업이 많아진 것은 글로벌 경쟁에 치열해졌고, 많이 팔았으나 이익이 별로 남지 않는 박리다매를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성기자

유튜브도 프로야구 전 경기 생중계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서도 국내 프로야구 경기를 실시간으로 관람할 수 있다.

그간 네이버가 사실상 독점해온 서비스에 구글의 서브 브랜드인 유튜브가 뛰어든 것이다. 프로야구 생중계로 거대한 사용자 집단을 확보한 네이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튜브는 30일 개막하는 2013 프로야구 전 경기를 유튜브 SPOTV 채널(www.youtube.com/spotv)에서 생중계한다. SPOTV는 스포츠 중계 및 콘텐츠 제작업체인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의 스포츠 전문 케이블 채널로 유튜브에 공식 채널을 오픈해 프로축구, 프로농구, e-스포츠, 이탈리아 프로리그 세리에A 등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중계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박상훈기자 [illegible]

분양단신

대전 도안신도시 '우미린'

우미건설은 대전 도안신도시 18블록 '우미린'을 분양 중이다. 단지 서쪽으로 도안공원이 동쪽으로 원평공원과 갑천이 남쪽으로 관저천이 내다 보인다. 또 각종 에너지 절감시스템을 도입해 공동 관리비를 줄이는 데 활용된다. 도안신도시 우미린은 지하 1층~지상 34층 12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70~84㎡ 총 1691가구 대규모 단지로 구성된다. 도안신도시 내에서 공급량이 드문 전용면적 70㎡, 78㎡ 934가구를 포함하고 있어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았던 단지다. 입주는 2014년 11월경이다. 문의 (042)477-5900

3호선 '홍은 동아 더프라임'

동아건설은 서대문구 홍은동에 '홍은 동아 더프라임' 아파트를 특별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17층 규모에 전용면적 59~74㎡에 분양가는 3.3㎡당 1200만원대다.

지하철 3호선 녹번역과 홍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유진상가 재건축을 비롯해 주변이 재개발촉진지구로 선정돼 주거환경 개선 및 미래가치 프리미엄이 기대된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5%이며 발코니 확장 비용을 지원한다. 입주는 2014년 9월 예정.

문의 (02)720-6280

부영그룹이 건립 기증하는 선덕여고 우정학사 준공식

부영그룹은 29일 신라 왕경터에 위치한 경주 선덕여자고등학교에 생활관 및 다목적 기숙사인 우정학사 를 신축, 기증하는 준공식 행사를 갖는다. 이중근(사진) 회장의 아호인 우정(宇庭)에서 따와 이름 붙인 '우정학사'는 연면적 999㎡(302평)에 지상 3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1실 4인용 기숙사 28실과 독서실, 강의실 등의 다양한 학습 교육 및 편의시설을 갖췄다.

27일 오전 서울 지하철 9호선에 탑승한 펠르랭 佛 장관이 스마트폰 무선 인터넷을 이용해 자신의 프로필을 검색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하철 탄 펠르랭 "와우!"

佛 디지털경제장관 "전철안 무선 인터넷 놀라워"

"어디서나 잘 터지는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이 정말 놀랍네요."

27일 플뢰르 펠르랭(40) 프랑스 중소기업·혁신·디지털경제 장관이 4박5일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생후 6개월만에 프랑스로 입양된 펠르랭 장관에게 이번 방문은 40년 만의 금의환향이기도 하다. 그녀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5월 장관으로 부임했다.

방한 마지막 날 펠르랭 장관은 IT와 교통 기술의 융합 성공 사례로 꼽히는 서울 강서구 소재 지하철 9호선 종합관제센터를 찾았다. 일본 출국을 앞둔 펠르랭 장관은 개화역에서 직접 T-머니 교통카드를 찍고 김포공항으로 가는 전철에 탑승했다.

전동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기사를 검색해본 펠르랭 장관은 "전철 안에서 초고속 인터넷이 잘 터져서 정말 놀랍다"면서 "프랑스에 한국의 앞서가는 시스템을 참고할 것"이라고 호평했다.

우리나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대해 "어제(26일)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새로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는 내가 맡은 조직과 닮은 점이 많다"고 밝혔다. 또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질적인 분야들의 시너지 효과 창출"이라며 "정부와 비즈니스 업계가 미래를 함께 양께 열한다는 메시지를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느덧 김포공항역에 도착한 펠르랭 장관은 "한국의 초고속 통신망이 가장 인상 깊다"면서 "IT강국인 한국과 프랑스가 앞으로도 돈독한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의 환대가 감동적이었다"고 여운을 남겼다.

/정윤희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테라스·숲속 산책… 오피스텔 맞아?

문정동 '송파아이파크' 일부 미계약세대 분양

현대산업개발이 이번달 말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297번지 일원 '동남권 유통단지 내 활성화단지(이하 '동남권 유통단지') 2~2블록에서 1403실(전용면적 25~59㎡)로 구성된 '송파아이파크' 오피스텔 일부 미계약분에 대한 분양에 나선다.

'송파아이파크'는 지하 4층~지상 16층 규모로 지하 1층은 주민공동시설 및 각종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되고 지상 1층은 판매시설, 2층부터 16층까지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3.3㎡당 분양가는 1100만원대로 인근에서 분양한 '송파 한화오벨리스크', '송파 대우푸르지오시티'의 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입주는 2015년 5월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다.

◆모든 세대에 테라스 제공 파격

'송파아이파크'가 오피스텔 시장에서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전실에 테라스가 설치된다는 점이다. 올해 2월 분양한 '광교 푸르지오월드마크', 현재 강남보금자리에서 (유)신영이 분양 중인 '강남지웰홈스' 오피스텔의 경우 일부 세대에 별도의 테라스 공간을 제공해 인기를 모았지만 모든 세대에 테라스를 제공하는 오피스텔은 '송파아이파크'가 처음이다.

지리적인 장점도 탁월하다. KTX 수서~동탄 구간의 시종착역으로 확정된 수서역이 직선 거리로 1㎞ 이내에 자리 잡고 있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 10월 23일 국토해양부 심의를 통과해 결정 공지된 '삼성~동탄간 광역철도(GTX) 개발계획'에 따르면 5개 정거장중 수서역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 지하철 8호선 장지역이 도보 5분거리에 자리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인근으로 분당 수서간 고속화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송파IC 등이 지나고 있어 서울내 외곽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특히 단지주출입구가 약 2만5000㎡ 규모의 '문정 센트럴파크' 산책로와 바로 연결돼 있어 힐링에 적합하다. 문의 1899-3999 /김지성기자

'한강의 기적' 이뤄낸 한국 '환경의 기적'도 보고 싶다

▶1면서 계속

◆지금까지 몇 몇 개국을 다녔나

미국-프랑스-스페인-슬로베니아-중국-태국-캄보디아-라오스… 1·2차 자전거 여행을 통해 전 세계 53개국을 다녔다. 자전거로 무려 14만6000km나 달렸다.

◆온난화 등으로 환경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어딘가

세계 곳곳을 다녀보니 환경문제로 시름하지 않는 곳이 없었다. 2011년 여름 우리가 호주에 있을 때에는 10년 가뭄 끝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중국에서는 산업 용수의 3분의 1, 생활 하수의 90%가 강이나 호수로 배출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한국의 환경오염 실태는 어떤가

6년 전 서울을 찾았을 때 교통 혼잡과 매연 때문에 고생을 했다. 한강 하류의 수질 오염도 생각보다 심각했다. 유럽에서는 녹지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생태 공원을 짓는 등 도심 속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이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처럼 다음에 한국을 방문했을 땐 '환경의 기적'을 이뤄낸 모습을 보고 싶다.

◆여행 중 만난 사람 중 가장 인상적인 사람은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정글에서 1주일간 함께 생활한 페낭(Penan)족은 잊을 수가 없다. 페낭족은 아직까지 수렵채집 방식을 고수하는 지구상 몇 안 되는 원주민이다. 이들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만큼만 자연에서 얻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원주민들이 오일팜(기름 야자나무)을 생산하기 위해 숲을 파괴하는 기업에 맞서 싸우는 모습에는 가슴이 뭉클하더라.

◆집을 팔아서 여행 경비를 마련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모자라진 않나

아직까지는 괜찮다. 정확하게 따져보진 않았지만 1년에 4000달러(약 430만원) 정도 쓰는 것 같다. /조선미기자 seonmi@

MB정부 낙하산 좌불안석

공공기관장 '인사태풍' 예고에 위기감… 내부선 "승진 많을 것" 기대

공공기관장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태풍을 앞두고 공직사회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9일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사표가 신호탄으로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새 정부에서 추구하는 국정운영 방향에 맞게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기류가 확산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차관과 외청장 인사를 미무리하면 공공기관장 인선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통령이 직접이거나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공기업 등 기관 수는 140여 곳이다. 기관장과 감사·임원까지 한 곳에 여러 명이 해당되기 때문에 인사 대상이 되는 자리는 500여 개에 달한다.

청와대는 현황 파악과 함께 인선 작업에 나섰으며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민정라인 차원의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에 공공기관에서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명백한 '낙하산'은 물론 전문성으로 유임을 기대했던 기관장들 사이에서도 '국정철학 공유'가 또 다른 인사 원칙으로 대두되면서 인사태풍을 피해 갈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한 고위 관계자는 "각 수석실에서 해당 공기업의 기관장이나 감사에 대해 현황 파악에 들어갔다"며 "해당 수석실에서 공공기관 기관장이나 감사가 낙하산 인사인지 아닌지를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관장 인사가 대통령 당선에 공을 세운 정치인을 위한 보은 차원이 아니라 전문성을 강조한 내부 승진 인사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내부 고위직은 반기는 분위기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전문성을 중시하는 것은 사실인 만큼 내부 인사의 승진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기자 grace100@metroseoul.co.kr

미소 짓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日 청소년 20% "공무원이 꿈"

한국은 건축가 가장 많아

일본 청소년들이 한국·미국·중국의 또래들에 비해 소박하면서도 안정한 장래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재단법인 일본청소년연구소가 한·중·일·미 등 4개국의 고등학생 총 66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복수 응답) 결과, 장래희망을 묻는 문항에 일본 학생 중 가장 많은 20%가 공무원을 꼽았다. 다른 나라 학생들의 경우 한국은 건축가·디자이너(30%), 미국은 의사(3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위험도가 높은 창업을 하겠다고 답한 학생 비율도 일본은 6%로 낮은 수준이었다. 중국이 31%로 가장 높고 미국(19%), 한국(12%)이 뒤를 이었다.

또 회사 경영자나 관리직을 원한다는 응답 비율은 일본이 4개국 중 가장 낮은 11%였고, 중국과 한국은 나란히 27%를 기록했다.

'사회적으로 크고 싶은가'라는 문항에서도 일본 학생은 45%가 '그렇다'고 답해 89%를 기록한 중국과 70%대의 한국, 미국에 비해 낮았다. 큰 인심이 되는 데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일본 학생의 70%는 '책임이 무거워진다'고 답했다.

'진보를 생각하면 불안하다'는 응답은 한국과 일본 학생에게서 나란히 83%대로 높게 나타났고 미국은 56%, 중국은 47%였다.

'취직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답한 학생도 중국과 일본이 나란히 76%대였고, 중국은 62%, 미국은 58%를 기록했다. /조선미기자

섹시한 조랑말 영국 섹시 모델 케이티 프라이스가 런던 서부의 한 스튜디오에서 '핑크 포니' 차림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프라이스는 자신의 회사 창립 6주년을 기념하고 승마용품 판매를 알리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 /AP 연합뉴스

4년 만에 추경 편성

오늘 경제정책 방향 발표 성장률 전망치는 낮출듯

박근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 등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첫 경제정책 방향을 28일 발표한다.

2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경제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경제 구현과 국정과제 이행 방안 등을 발표한다.

4년 만에 편성하는 추경 규모는 10조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확대를 위한 세출예산 증액과 세입예산의 소폭 감액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경기 회복이 늦어진 점을 감안해 경제 전망은 다소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발표한 경제성장률은 3.0%에서 2%대 중후반으로 낮춰잡고 취업자 증가폭도 32만 명보다 목표치가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은 큰 방향만 담는다.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부 대책은 다음달 초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리기자

개인정보 인권침해 10년새 17배 ↑

폐쇄회로(CCTV)와 주민등록번호 노출 등 정보인권 관련 진정·민원이 10년 새 1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정보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권위에 접수된 정보인권 관련 진정·민원은 638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인 2002년(377건)의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접수된 진정·민원은 모두 3만7200건이었으며 CCTV, DNA 등 개인정보 관련 민원이 85.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권위는 보고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CCTV통합관제센터는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 데다 CCTV 설치 목적을 다양하게 허용했고 해킹이나 정보유출에 대한 방지 장치가 미흡하다"며 "관계자가 참여하는 운영협의체 구성, 개인영상정보 공유 최소화 등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잦은 해킹사고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다수 유출돼 대출사기 전화금융사기 등에 사용되고 있다"며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리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112명"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이 사망 원인으로 의심되는 사례 112건이 보건 당국에 공식 접수됐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의심사례 접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 11월 11일부터 2013년 3월 14일까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112명이 사망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사람은 357명으로 사망률은 31.3%에 달했다.

사망자 중 7세 미만 영유아는 64명(57%), 20~30대는 18명(16%)이었다. /김유리기자

야금야금 신용대출 받다간 신용도 '뚝뚝'

'신용등급 높여라' 올크레딧 내달 21일까지 체험단 모집

직장 경력 5년차로 3년 전 결혼을 준비하며 무리한 전세금 마련으로 생활비에 쪼들려 크고 작은 신용대출에 의존했던 K(33·남)씨. 1년 만에 그의 신용은 6등급으로 3단계나 하락하고 말았다.

신용 관리의 중요성은 익히 알고 있어 그간 공과금부터 신용카드 대금 등을 가능한 한 연체 없이 상환하며 나름대로 잘 관리한다고 생각했는데 과거 단기 연체 이력과 여러 건의 신용대출 신규 발생으로 야금야금 신용도 하락이 발생한 것이다.

◆**신용 6등급의 K씨, 신용 2등급이나 상승한 비결은?**

앞으로 아기도 태어나고 전셋집도 늘려가야 하는데 무엇보다 크게 하락한 신용이 문제라고 여긴 K씨는 2011년 마침 올크레딧(www.allcredit.co.kr)에서 진행하는 신용관리 체험단에 참여하게 됐다.

K씨는 체험단을 통해 자신의 전반적인 신용 상태를 진단받은 후 전문가들의 코칭과 함께 약 2개월간 본격적인 신용 관리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터득한 효율적이며 과학적인 신용 관리법으로 이후 지금껏 꾸준히 자신의 신용을 관리해온 결과 불과 그의 신용은 2단계나 상승한 4등급으로 거의 원상회복됐다.

매주 미션수행하며 두달간 전문가 개별코칭
前 참가자 25명 중 20명 신용↑… 상품은 '덤'

◆**신용관리 체험단 참가자 25명 중 20명이 신용 상승**

신용은 그 속성상 하락은 단기간이지만 상승에는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 K씨처럼 체계적인 신용 관리를 통해 상당 기간 꾸준히 관리해가면 상승 기간을 보다 크게 앞당길 수도 있다.

2년 전 당시 K씨와 함께 올크레딧의 신용관리 체험단에 참가, 끝까지 완주한 25명의 이후 신용도 변화를 추적한 결과 2013년 3월 현재 80%에 해당하는 20명이 최소 신용 1등급 상승했으며 그 20명 중 9명은 2등급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씨처럼 전문가들로부터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신용 관리법을 배워 자신의 신용 관리에 적극 활용한 결과다.

올해 역시 올크레딧은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후원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제 신용 관리 체험을 통해 신용 관리의 중요함을 전하는 한편 신용 정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나아가 '체계적 신용 관리법'을 제시하고자 2013년 신용관리 체험단을 모집하고 있다.

◆**2013년 신용관리 체험단 4월 21일까지 접수**

지난 2011년에 이어 올해로 3기째인 올크레딧의 신용관리 체험단 모집 기간은 오는 4월 21일까지. 신용 관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올크레딧(www.allcredit.co.kr) 또는 서민금융119(s119.ccrs.or.kr)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상의 신용관리 체험단 캠페인 배너를 통해 게시판에 응모 사연을 댓글로 입력하면 응모할 수 있다.

이 중 선정된 총 80명의 참가자들은 4월 25일부터 6월 21일까지 약 두 달간 신용 관리, 부채 클리닉, 서민금융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부터 개별 코칭을 받으며 매주 주어지는 미션을 달성해나가야 한다.

신용관리 체험단 참가자로 선정된 전원에겐 '올크레딧 종합신용관리 이용권', 금융명의보호 서비스 등이 무료 제공된다. 또 중도 탈락 없고 끝까지 완주한 전원에게 현금 5만원, 신용등급 상승 등 미션 우수 달성자 10명에겐 현금 10만원 등 다양한 혜택과 시상도 주어진다. 신용 관리 우수 사례 등의 결과는 올크레딧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유지성기자 lazyhan@metroseoul.co.kr

올크레딧 신용관리 체험단 1기 신용등급 변화

- 체험단 참여 전(2011.10) VS 참여 후(2013.2)
- 총 참여완료 인원 : 25명 中

등급(평점) 변화	체험단 수	비중
1등급이상 상승	11명	44%
2등급이상 상승	9명	36%
평점상승	2명	8%
등급변화 없음	3명	12%
합 계	25명	100%

(자료출처: 한국신용정보 연구소)

신용관리 체험단 3기 모집

응모기간 2013년 3월 21일 ~ 4월 21일

응모자격 평소 신용등급을 향상시켜 건강한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은 모두 응모 하실 수 있습니다.

응모방법 지금 올크레딧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내가 체험단에 꼭 뽑혀야 하는 이유를 댓글로 작성해주세요.

체험단 혜택
1. 신용전문가 맞춤 상담
2. 신용등급 향상 체험단 미션 진행
3. 올크레딧 종합패키지 이용권
4. 올크레딧 신용생활 365책자 증정
5. 하우머니 안심검색 이용권

※ 응모신청은 www.allcredit.c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ATM서 캐시비카드 충전 OK

신한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캐시비카드 충전이 가능해진다. 이비카드는 신한은행과 제휴를 맺고 전국 신한은행 ATM에서 캐시비카드 충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전국 950개 지점 7746대의 신한은행 ATM을 통해 캐시비카드를 현금으로 충전할 수 있고 잔액 조회 서비스도 제공된다. 신한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고객은 계좌를 통한 충전뿐만 아니라 잔액 환불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캐시비카드는 교통카드 기본으로 전국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CU·GS25·미니스톱 등 5대 편의점은 물론 롯데백화점·롯데슈퍼·롯데마트·롯데리아·롯데시네마·SPC 등 6만여 캐시비 전국 유통점에서 사용과 포인트 적립(일부 제외)이 가능하다.

/김지성기자

외환은행 "중소기업 지원 확대하라"

현장방문 애로사항 청취

외환은행(은행장 윤용로)은 지난 26일 '현장 중심 경영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방문행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외환은행에 따르면 이날 윤용로 은행장은 반월공단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자동차용 금형 제조업체인 ㈜코암이지 (대표이사 이동률)와 시화공단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위생용 종이 용기 제조업체인 상봉물산㈜(대표이사 조흥로)을 차례로 방문해 기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공장 증설 계획에 따른 시설투자 자금 지원 등 은행거래 관련 현안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외환은행은 올해 점수인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월 2곳 이상의 거래기업체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지성기자

metro entertainment

이 작품 보자마자 연기욕구 솟았죠

김정화(30)는 그간의 마음고생 탓인지 안쓰러울 정도로 살이 쏙 빠진 모습이었다. 그러나 밝게 웃는 표정은 여전히 예뻤고, 목소리는 활기에 넘쳤다. 지난해 11월 어머니를 여읜 슬픔을 가슴에 애써 묻고 뮤지컬 '그날들'(다음달 4일 대학로뮤지컬센터 개막)로 본업인 연기 활동을 재개하는 그를 연습실이 있는 남산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뮤지컬 '그날들'로 활동 재개하는

김·정·화

김광석 노래로 엮은 작품

"살 좀 빼야 할 것 같다"는 말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빠진다. 특히 요새는 하루 12시간씩 공연 연습을 하다보니 체력적으로도 힘들다"고 푸념하면서도 "오랜 만에 뮤지컬을 하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니 좋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지난해 4월 KBS1 대하사극 '광개토태왕'을 마친 김정화는 그해 10~11월 MBC 주석 특집극 '못난이 송편'에 잠시 출연하고 에세이집 '안녕 아그네스'를 출간한 뒤로 바쁜 연기자 생활과는 잠시 떨어져 살았다. 특히 뮤지컬 복귀는 오디션 이후 6년 만이다.

> 사라진 통역관 역할 캐스팅
> 몸도 연기도 힘들지만 좋아
> 결혼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

"회사에서는 복귀를 서두르려고 했는데 엄마를 떠나보내고 나서 아직 마음 정리가 되지 않아 작품에 몰입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날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 놓치고 싶지 않았답니다."

고 김광석이 부른 주옥같은 노래들로 구성된 이번 작품에서 20년 전 사라진 통역관 '그녀' 역할을 맡았다. 미스터리한 여인의 캐릭터를 구축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즐겁게 연기하고 있다.

"몸도 연기도 힘들고, 6년 만의 뮤지컬인 데다 대극장에 서는 것도 처음이라 떨려요. 그러나 연기에 대해 고민하는 게 행복하고 작품에 몰입하는 동안엔 웃을 수 있어서 좋아요. 특히 김광석씨의 노래를 예전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부르고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죠."

이번 작품에서 김정화는 유준상·오만석 강태을 이경준 지창욱·오종혁 등 실력파 남자배우들과 호흡을 맞춘다. 유준상 이정열 등 선배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됐다는 그는 "노력한 만큼 무대에서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를 당부했다.

봉사와 기부 그리고 조부

어서이 이야기를 꺼내지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기아대책 홍보대사로 묵묵히 봉사와 기부 활동을 펼쳐온 김정화는 이 책에 2009년 인연을 맺은 우간다의 결연 아동 아그네스와의 이야기를 담아 인세 전액을 우간다 에이즈 아동을 돕는 데 기부하기로 해 화제가 됐다.

"진심은 통한다고 믿어요. 지난달 말 아그네스에게 크리스마스 카드가 왔어요. 우간다에서 편지가 오다 보니 받아보려면 보통 한두 달이 걸려 이제야 받아보네요. 하하하."

그러나 계속되는 책 이야기에 갑자기 고개를 떨궜다. 책에서 다뤘던 엄마의 암투병 모습이 불현듯 떠올라서였다.

"다음달 둘째 주가 엄마 생신이에요. 공연을 하면서 정신없이 지내다가도 엄마 생각에 눈물이 나곤 해요. 돌아가신 직후엔 실감을 못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빈자리를 실감하게 되네요. 시간이 해결해주겠죠?"

최근 몇 년간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한층 성장한 듯 보였다.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난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담담히 이야기했다.

어떤 곁에서 자꾸즐 가족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김정화는 "아직 일이 바빠 결혼 계획은 없지만 좋은 인연이 있다면 어른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다"면서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사진/서보철(라운드테이블) 디자인/원지영

star bag

인도네시아 팬미팅 5000명 몰려

한류스타 이민호의 첫 방문에 인도네시아가 들썩였다. 이민호는 23일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컨벤션센터 프레닌리룸에서 5000여 명의 팬들이 운집한 가운데 팬미팅을 개최했다. 3시간여 동안 성황리에 펼쳐진 이번 행사는 그의 출연작인 '꽃보다 남자' '개인의 취향' '시티헌터'가 높은 인기를 누리면서 이뤄졌다.

두번째 리메이크 음반 내고 컴백

이수영이 28일 두 번째 리메이크 앨범 '클래식(Classic) 더 리메이크 두 번째'를 발표한다.

27일 소속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에는 이승철의 '인연'과 박효신의 '눈의 꽃', 성시경의 '희재' 등이 수록됐다. 2004년 첫 리메이크 앨범을 발표했던 이수영은 "무대를 그리워하는 감정을 녹였다"고 밝혔다.

데뷔 첫 정통 클래식 앨범 발표

팝페라 테너 임형주가 클래식 앨범 '클래식 스타일'을 28일 발표한다고 소속사인 디지엔콩이 27일 밝혔다.

이번 음반은 임형주가 데뷔 후 처음 선보이는 정통 클래식 앨범으로, 오스트리아의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빈의 유서 깊은 공연장인 빈 콘체르트 하우스에서 녹음해 완성도를 높였다.

김범수·아이비와 한솥밥 먹는다

여성 보컬 럼블피쉬(본명 최진이)가 김범수 아이비와 한솥밥을 먹는다.

이들의 기획사인 클라리스엔터테인먼트는 27일 "럼블피쉬의 매력적인 음색을 높이 평가해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며 "본격적인 앨범 준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혼성 밴드로 출발한 럼블피쉬는 2008년 솔로 독립 후에도 같은 이름으로 활동 중이다.

뛰고 또 뛰고… 화끈한 도주 액션

film review

신하균 주연 살인누명 스토리… 킬링타임에 딱

■런닝맨

다음달 4일 개봉될 '런닝맨'은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쓴 도망자가 서울 도심 곳곳을 휘젓으며 쉴 없이 뛰어다니는 무한 질주 액션영화다. 보는 이들마저 허리가 뻐근할 정도다.

전직 도망 전문가인 차종우(신하균)는 낮에는 카센터 직원, 밤에는 콜 전문 기사로 관객기 소원한 아들(이민호)과 함께 살고 있다. 어느 날 큰돈을 주겠다는 손님을 태워 신이 났는데, 그 손님이 살인을 당한다. 현장에서 도망친 차종우는 살인 용의자로 몰리고 경찰과 의문의 사람들에게 쫓긴다.

어쩌면 차종우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속 김 첨지와 같은 처지인지도 모른다. 큰돈을 선뜻 내미는 손님을 태우고 신나게 운전할 생각에 들떠었다. 졸지에 살인 용의자가 돼 도망가는 신세가 되니 말이다.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구심은 그가 왜 도망가야 하는가다. 아무 잘못도 없지만 도망가는 이유는 전범으로 '별을 단' 과거 때문에 지레 겁을 먹었기 때문일 터다. 관객들은 그 심정을 먼저 받아들여야 이후의 사건들에 몰입할 수 있다.

그러고 나면 도심 액션에 빠져들 차례다. 도망 전문가답게 청계천과 동작대교, 서울 월드컵경기장 등을 종도 횡고 다닌다. 위험천만한 자동차 레이싱도 빼놓으면 안 된다. 고소공포증과 갈비뼈 부상을 딛고 강력한 액션을 선사하는 신하균은 '정말 고생했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또 까칠한 성격의 아들과 엉성한 강력반 반장, 2류 기자 등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한다. 특히 김상호가 맡은 강력반 반장은 대화 중 엉뚱한 대사를 내뱉으며 논스톱 액션에 웃음기 가득한 쉼표를 찍는다.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인 20세기폭스가 최초로 메인 투자를 맡았는데, 보고 나면 그들이 왜 투자했는지 알 수 있다. 킬링타임용 액션영화로 딱이기 때문이다. 15세 이상 관람가.

w nd8686@naver.com

주진모 '친구2'로 스크린 복귀

곽경택과 6년만에 호흡

주진모(사진)가 영화 '친구 2'로 곽경택 감독과 '사랑' 이후 6년 만에 재회한다.

소속사는 27일 "전편 주인공 준석(유오성)의 아버지이자 1960년대를 주름잡던 전설 이철주 역을 맡아 다음달부터 촬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주진모는 "이번 작품은 흔한 건달 이야기가 아닌 각 캐릭터들의 페이소스를 그린다는 점에서 끌렸다"며 "남자의 진한 향기를 발산하겠다"고 다짐했다.

전편은 2001년 개봉 당시 800만 관객을 동원하며 유행어 열풍까지 불러일으켰다.

주진모와 더불어 유오성이 복귀하고 '학교 2013'의 새내기 김우빈이 가세한 속편은 세대를 대표하는 남자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조성준기자 when@

'건축학개론' 여주인공 서연의 집 카페로

영화 '건축학개론'의 주요 무대였던 여주인공 서연(한가인)의 집이 '카페 서연의 집'으로 27일 재탄생했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 위치한 이 곳은 극중에서 서연과 건축가 승민(엄태웅)이 재회하고 첫사랑을 확인하는 모티브로 제공됐다.

이날 개관식에 참석한 한가인은 "촬영 세트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는데 정말 감사할 만한 선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기성용·한혜진 열애 “사귄지 두달 됐어요”

재작년 아시안 드림컵서 처음 알고난 후 누나·동생서 커플로… 배우 김우영 오작교 역할

만남부터 연인되기까지

배우 한혜진과 축구선수 기성용이 결국 열애를 인정했다.

한혜진의 소속사 관계자는 27일 메트로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두 사람이 2개월째 교제 중"이라며 "친한 누나 동생 사이로 지내다 최근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잘못한 것도 아니므로 당당하게 만나고 싶었다"며 한혜진보다 먼저 교제를 인정한 기성용은 오후 영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종교적으로도 서로 의지하는 사이다. 축구하는 데 여러모로 배려받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열애설은 올해 초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처음 불거졌으나, 당시 양쪽 모두 부인했다. 22일 열린 축구 대표팀의 자체 평가전에 출전한 기성용의 축구화에 한혜진과 기성용의 영문 이니셜로 추정되는 'HJ SY'가 새겨진 것이 포착되면서 또다시 열애설이 수면 위로 떠올랐으나 양쪽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두 사람의 영문 이니셜 'HJ SY'가 새겨진 기성용의 축구화

그러나 27일 이른 아침 한 매체가 브라질 월드컵 최종 예선 카타르전이 끝난 후 두 사람이 비밀리에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을 포착해 보도하자 교제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기성용과 고등학교 동창인 배우 김우영이 주위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한혜진을 기성용에게 자로 데려다주는 등 오작교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성용은 지난해 8월 한혜진이 진행 중인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 게스트로 출연해 "한혜진 누나 같은 여자가 이상형이다. 이런 여자라면 바로 결혼한다"고 말한 바 있다. 네티즌은 이 같은 방송 내용과 열애 소문들을 근거로 한혜진이 9년간 교제한 가수 나얼과 지난해 9월 결별한 이유를 두고 "기성용 때문이 아니냐"며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이에 대해 소속사 관계자는 "두 사람이 사귄 건 최근"이라며 선을 그은 뒤 "2011년 6월 베트남에서 열린 두산 아시안 드림컵에 한혜진씨가 홍보차 참석했을 때 처음 알게 된 후 누나 동생 사이로 지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혜진은 1981년생, 기성용은 89년생으로 무려 8살 차이가 난다.

열애설과 함께 불거진 결혼설에 대해서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결혼은 이르다"고 부인했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용준형·구하라 2년만에 결별

비스트 용준형과 카라 구하라가 교제 2년여 만에 헤어졌다.

가요계의 한 관계자는 "이들이 최근 좋은 동료로 남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결별 사유는 바쁜 소속팀 활동과 개별 스케줄 탓에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다. 2011년 6월 교제를 정식으로 인정했던 용준형과 구하라는 한때 헤어질 위기를 겪었지만 다시 만남을 이어갔었다.

한편 용준형은 5월 방송 예정인 뮤지컬드라마 '몬스타' 촬영에 한창이다. 카라는 1월 일본 도쿄돔 공연에 이어 현지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조성준기자

박주미 '무릎팍도사' 녹화 마쳐

지난해 10월 교통사고로 KBS1 '대왕의 꿈'에서 중도 하차했던 박주미가 MBC '무릎팍도사'로 6개월 만에 방송 활동을 재개한다. 27일 소속사에 따르면 박주미는 전날 경기도 일산 MBC드림센터에서 진행된 '무릎팍도사' 녹화에 게스트로 참여했다. 이날 녹화에서 그는 교통사고로 인한 하차 심경 등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행 혐의' 고영욱 징역 7년 구형

검찰 전자발찌 부착 청구
피고 측 "강제성 없었다"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7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등 유사한 방법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공소 내용이 가볍다고 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검찰의 이 같은 구형에 고영욱 측 변호인은 "지난해 3월 고소된 첫 사건은 당시 용산경찰서에서 학교폭력을 수사 중이던 피해 학생의 친구 아버지가 고소를 권유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 사건은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지만 이후 계속 고소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관계 중 피고인이 피임 기구를 착용했고 사건 이후에도 일부 피해자는 자주 연락을 해왔다는 점 등을 보면 상식적으로 강제로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조성준기자 when@

김재철 MBC 사장 자진사퇴 방문진 해임 불명예 피하려

해임을 앞둔 MBC 김재철(60) 사장이 27일 자진 사퇴했다.

MBC는 이날 "김재철 사장이 오늘 오후 임원회의에서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뜻을 존중해 사퇴하겠다고 밝히고 회사의 경영국에 사직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문진 이사회는 전날 임시이사회를 열어 김재철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했다.

해임안은 주주총회 의결이라는 최종 절차를 남겨 두고 있었지만 방문진이 전체 지분의 70%를 보유한 최대주주라 해임안 가결로 김 사장의 해임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다. 그러나 아직 주주총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김 사장은 공식적으로 사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의 이번 사표 제출은 MBC 역사상 방문진이 해임한 최초의 사장이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택한 것으로 보인다.

/황인웅기자 mjrim@

10년만에 신곡 내는 조용필 쇼케이스

10년 만에 19집 '헬로'를 선보이는 '가왕' 조용필이 27일 음반 수록곡 목록을 공개했다.

다음달 23일 발매될 이번 음반에는 타이틀곡 '헬로'를 포함해 '바운스' '걷고 싶다' '어느 날 귀로에서' 등 록·팝·발라드 장르의 10곡이 수록됐다.

이 중 '어느 날 귀로에서'는 서울대 사회학과 송호근 교수가 가사를 쓰고 조용필이 작곡한 노래다.

소속사인 YPC프로덕션은 "록 사운드에 감각적인 비트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를 얹은 '헬로'와 장엄한 스케일의 오케스트라 연주가 가미된 '걷고 싶다' 등 대부분의 곡들에 외국 작곡가들이 참여했다"며 "특유의 음악성과 함께 최신 트렌드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발매 당일 서울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개최될 쇼케이스에서는 후배 가수들이 대선배에게 헌정하는 공연도 함께 마련된다. 소속사는 "많은 후배들이 트리뷰트 무대에 나설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성준기자

남도는 지금 꽃축제중

제주왕벚꽃·구례산수유·광양매화 등 이번 주말 화사한 손짓

며서은 꽃샘추위에도 봄아 부지런히 북상하고 있다. 벚나무, 산수유, 매화 등 꽃나무가 예년보다 일찍 꽃을 왔겠다. 서울에서도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선 4월 8일께 벚꽃을 볼 수 있을 예정이다. 그보다 먼저 남쪽에서부터 꽃물이 들고 있다. 칼바람을 뚫고 피어난 봄꽃들로 '꽃의 축제'가 줄지어 봉오리를 터뜨리고 있다.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제22회 제주왕벚꽃축제'에서는 천연기념물인 왕벚꽃나무의 넘쳐한 꽃잎을 감상할 수 있다. 29~30일 오후 9시부터 진행되는 작은음악회와 을벚나무·산벚나무·이스라지 등 자생 벚나무 13종을 소개하는 전사 홍보관도 놓쳐서는 안 될 구경거리다.

전남 구례군은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제14회 구례산수유꽃축제'를 개최하고 온종으로 산수유를 만끽할 수 있는 상설 체험 마당을 마련했다. 눈으로 보는 꽃놀이를 벗어나 산수유 떡메 치기, 산수유 막걸리 제림, 산수유 두부·쿠키 만들기, 산수유 씨 분리하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즐기다 보면 어느새 마음까지 노란 꽃물이 든다.

나뭇가지에 눈송이처럼 소복하게 내려앉은 매화도 빠질 수 없는 봄꽃이다. 31일까지 열리는 '제16회 광양국제매화축제'에서는 섬진강을 끼고 흐드러지게 핀 매화 군락이 절경을 이룬다. 다섯 가지 코스의 매화 산책로만 걸어도 봄의 한가운데 온 듯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광양시 홈페이지에서 무료 광양시티투어(30인)를 사전 예약하면 축제를 보다 알차게 즐길 수 있다.

한편 봄꽃 개화 시기가 들쭉날쭉해지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축제 시기 결정에 애를 먹고 있다. 전남 '광양국제매화문화축제'는 개최 16년 만에 가장 늦은 이달 23일부터 31일까지로 개최 시기를 변경했다. 충북 괴산군은 '미선나무꽃축제'를 예정보다 일주일 앞당겨 29~31일에 연다. /권보람기자 kwon@metroseoul.co.kr

지난 24일 전남 광양시 섬진강변 매화마을에서 열린 '2013광양국제매화축제'에서 한 가족이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휘닉스 서포터즈 'P.O.P' 첫 모집

내달 14일까지 신청 접수

휘닉스리조트가 서포터즈 'P.O.P(People Of Phoenixresort)' 1기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벤트과 레저 활동을 좋아하고 블로그·SNS 매체에 관심이 많은 18세 이상 성인 남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4월 14일까지 홈페이지(www.pp.co.kr)와 공식 블로그(blog.naver.com/ppblog)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e메일(ppblog@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합격한 20명은 5개월간 휘닉스리조트의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된다. 서포터즈에게는 매달 활동비 10만원이 지급되고 활동 기간 휘닉스리조트의 각종 시설을 직원과 똑같은 혜택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진다. 우수 서포터와 우수팀에게는 각각 상금 100만원과 상장이 수여된다.

휘닉스리조트 홍보팀 채경석 팀장은 "레저 활동에 관심이 많고 홍보 및 마케팅 실무를 직접 체험하고 싶은 이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권보람기자

발리·자카르타 특가 항공권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이 발리·자카르타 얼리버드 특가를 오픈했다.

발리 특가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출발하는 신혼여행객에 한해 64만원부터 판매한다. 자카르타 특가는 출발 기준 7월 20~8월 16일은 62만원부터, 8월 17~9월 30일은 54만원부터다.

두 지역 모두 4월 1~5월 31일 사이에 발권을 마쳐야 하며 날짜 변경 수수료는 3만원, 환불 수수료는 20만원이다.

대륙이 반한 <이니연> 'NY 스타일'

패션기업 연와이 창립 20주년 '2013 이나연 여름컬렉션' 눈길

25~35세 타깃·톱스타도 즐겨 중·러 인기 이어 유럽서도 관심

리드미컬한 음악이 쇼의 오프닝을 알리자 검정 슬리브리스 톱과 레이스 패턴의 미니스커트를 입은 모델이 등장했다. 섬세함을 강조한 모노톤의 의상으로 시작한 쇼는 후반으로 갈수록 옐로·핑크·블루 등 과감한 네온 컬러로 물들었다. 쏟아지는 핀 조명을 따라 플라워 패턴의 미니원피스를 입은 모델이 런웨이에 서자 객석에선 탄성이 쏟아졌다. 이어 스트라이프 패턴의 캐주얼 라인과 블랙 앤드 화이트의 단아함이 돋보인 투톤 원피스 등이 쇼의 대미를 장식했다.

◆ 세컨드브랜드 NY2 등 새로 론칭

패션업체 연와이가 27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2013 이나연 여름 컬렉션'을 개최했다. 이번 컬렉션은 중국 대리점 수주회를 겸한 신제품 발표회로 연와이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특별히 한국에서 진행됐다.

올봄 세컨드브랜드 'NY2'와 미시 정장전문 브랜드 '레드 이나연'을 론칭한 연와이는 2013년을 새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에 걸맞게 총 180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과감한 컬러와 화려한 플라워 프린팅, 플레어 디자인 등으로 중국 소비자들을 겨냥했다.

이날 행사에는 루지우·상하이 등 중국 전역의 연와이 대리점주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일본·유럽·동남아에서 온 해외 바이어와 국내 패션 관계자 100여 명을 비롯해 평소 이나연의 럭셔리 라인을 즐겨 입는 톱스타들도 자리를 빛냈다.

중국 상해점을 운영하고 있는 쉬아이우는 "이나연은 화려한 디자인과 완성도로 30대 중국 여성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며 "특히 이번 컬렉션에서 선보인 화려한 색상과 소재의 다양성은 중국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993년 디자이너 패션 브랜드 이나연을 모회사로 설립된 연와이는 25~35세 전문직 여성을 타깃으로 유행을 선도하는 고품격 드레스를 제작해왔다. 2003년엔 직영 공장을 설립해 디자인부터 제조, 유통까지 브랜드 경영 전반을 수직 계열화했으며, 2007년 중국 청두를 시작으로 러시아 모스크바에까지 뻗어나갔다.

연와이의 최고경영자 이옥화 대표는 "세계 패션 트렌드를 중국, 러시아 등 각국 소비자의 성향에 맞춰 현지화하는 것이 이나연 브랜드가 추구하는 목표"라며 "이번 컬렉션을 성공리에 마쳐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권보람기자 kwon@metroseoul.co.kr

27일 오후 서울 남산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3 이나연 여름컬렉션'에서 모델들이 플라워 패턴의 미니 원피스 등을 선보이고 있다. 콜렉션을 연 연와이 이옥화 대표는 "더위를 잊게 만드는 강렬한 색상과 화려한 프린팅으로 캐주얼한 느낌을 강조한 것이 이번 컬렉션의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송진영기자 son@

구찌 '플로라' 제품 60여점 한자리에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구찌가 다음달 4~17일 서울 청담동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플로라 아카이브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는 구찌의 대표 디자인인 '플로라(Flora)'의 과거와 현재를 되짚어보는 자리로, 플로라 패턴이 적용된 제품 60여 점을 한자리에 모았다. 플로라 디자인은 꽃과 곤충 등이 어우러진 것으로 1966년 내놓았던 그레이스 켈리 헌정 스카프에 처음 선보였다.

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프리다 지아니니가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브루즈와 봄·여름 플로라 제품을 함께 공개한다.

한편 전시회를 기념해 다음달 4~5일 구찌 장인 2명이 실크 스카프 제작 과정을 직접 선보이는 '실크 아티잔 코너'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지원기자

홍콩의 '5초 슈즈' 국내 론칭

'5초 슈즈'로 불리는 홍콩 신발 브랜드 스타카토(STACCATO)가 다음달 2일 국내 첫 론칭쇼를 진행한다.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커피스미스에서 열리는 론칭쇼에서는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와의 콜라보레이션 콘셉트, 섀도 모션, 퓨어 센스, 엘리 터치 등 네 가지 콘셉트로 패션쇼와 오픈하우스 디스플레이 등을 선보인다.

이 밖에 꽝 없는 스크래치 복권 이벤트, 포토월 서비스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손목 위 '남자의 품격' 살려볼까

옷차림별 시계 코디요령

정장엔 가죽·메탈 밴드 캐주얼패션엔 러버밴드

사회에 첫발을 뗀 신입사원들에겐 옷차림이 전략이다. 하지만 진정한 멋쟁이 남성은 '디테일'로 승부하는 법. 손목 위 깔끔한 시계는 선배와 동료들에게 신뢰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휴고보스 워치 관계자는 "시계는 '남자의 품격'을 말해주는 바로미터"라며 "직종에 따른 옷차림에 맞게 시계를 고르라"고 조언했다.

각 잡힌 슈트를 입는 사무직 종사자들에겐 가죽이나 메탈 밴드 시계가 잘 어울린다.

휴고보스의 갈색 가죽밴드 시계는 고급스러운 크로커다일 엠보 패턴이 자칫 어려 보이기 쉬운 신입사원의 패션에 무게감을 더해준다.

또한 시원한 느낌의 메탈 시계는 세련된 이미지로 자신감 넘치는 '루키'의 모습을 보여준다.

슈트보다 캐주얼한 옷차림을 즐겨 입는다면 조금은 튀는 시계를 골라보자.

빅토리녹스 스위스 아미 워치의 '나이트 비전'은 원형 다이얼에 검은 베젤로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최근 출시된 러버 밴드는 정장뿐 아니라 캐주얼 스포티룩에도 매치하기 쉽다. 특히 LED 모듈을 탑재해 버튼을 누르면 다이얼이 푸른색으로 빛난다.

'자동차 마니아'인 선배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시계도 있다.

시티즌의 '토요타 86시리즈'는 자동차 토요타 86시리즈와 콜라보레이션으로 만든 시계로, 레드·블루·블랙을 포인트 컬러로 사용해 감각적이다. 크로노그래프 역시 자동차 계기판을 닮은 독특한 형태다.

/박지원기자 pjw@

'남성용 악마크림' 괴테크림 나왔다

라라베시 끈적임 싫어하는 남성 취향 반영 비타민 나무 열매수 50% 담아 건조함 개선

'악마크림'으로 유명한 화장품브랜드 라라베시가 남성용 '괴테크림'을 오늘(28일) 처음으로 선보인다.

라라베시 관계자는 "남성 고객들의 끊임없는 요청으로 악마크림 남성 버전을 출시하게 됐다"며 "남자들의 피부 타입별 건조 정도와 보습 상태를 집중 연구한 끝에 개발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라라베시에 따르면 괴테크림은 건조한 남성의 피부 개선을 위한 '최적의 성분비'를 갖췄다.

촉촉하고 부드러운 피부를 위해 정제수 대신 비타민나무 열매수(Seabuckthorn)를 50% 함유했다. '비타민의 보고'라고 불리는 비타민나무 열매수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식물로 비타민 함량이 사과의 200배에 달해 피부 보습 케어에 도움을 준다.

사용감도 뛰어나다. 빠르게 흡수되면서도 피부 속까지 꽉 채워주는 보습감과 촉촉한 마무리까지 끈적임을 싫어하는 남성들이 부담 없이 쓰기에 안성맞춤이다.

독일 문학의 거장 '괴테'를 차용한 제품 이름도 독특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의미는 더욱 재미있다.

라라베시 관계자는 "괴테(Goethe)라는 이름은 '그가 보는 영원함의 무게 75g(75 Gram of eternity that he see)'이라는 단어의 조합에서 나왔다"며 "이는 악마크림이 담고 있는 가치와 함께 남자들의 감성과 가치를 75g의 제품 안에 담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팝아트 디자인 또 한번 화제

시즌마다 화려한 팝아트 디자인을 선보여왔던 라라베시는 이번에도 팝아트 디자인 'To 앤디 워홀 from 라라베시'를 미리 공개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앤디 워홀(Andy Warhol)을 오마주한 팝아트 작품으로 라라베시만의 디자인 철학을 비주얼 이미지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라라베시의 '괴테크림'(위)·아래는 괴테크림의 디자인 팝아트 작품 'To 앤디 워홀 from 라라베시'

이번에 선보인 괴테크림은 봄철 피부 건조와 복합성 피부 개선을 위한 남성 악마크림의 첫 번째 시리즈이며 앞으로 계절 및 피부 타입별로 출시될 예정이다.

괴테크림은 라라베시 공식 쇼핑몰(www.lalavesi.com)과 콜센터(070-4142-6240)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괴테크림'을 입력하면 된다. /박지원기자

던킨 '핫밀' 5가지 맛의 유혹

'에그치즈 빠니니' 등 출시 모닝세트 1000원 할인행사

국내 사업 20주년을 맞아 간편식 강화를 선언한 던킨도너츠가 최근 빠니니·핫도그 등 핫 밀(Hot Meal) 5종을 새롭게 출시했다.

시저소스와 치킨을 넣은 '시저치킨 빠니니'와 삶은 계란·펜네스텔야·모차렐라 치즈를 넣은 '에그치즈 빠니니'는 따끈한 이탈리아식 샌드위치로 속을 든든하게 채워준다. 가격은 모두 4500원.

소시지의 톡 터지는 식감과 새콤달콤한 소스가 어우러진 핫도그는 피클과 양파·머스터드소스를 올린 '클래식 핫도그'와 멕시칸 칠리소스를 더한 '칠리 핫도그' 두 종류로 각각 3000원에 출시됐다. 삼각형 모양의 감자요리 '해쉬브라운 포테이토'는 1500원에 즐길 수 있다.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오전 11시 이전에 새로 출시된 핫 밀과 커피를 세트로 구매할 경우 1000원을 할인해주는 '모닝세트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던킨도너츠 관계자는 "오전 시간대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아침을 거른 고객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해림기자

외식업계 'VIP 대접' 화끈하네

결제 실적 좋은 고객에 스테이크·와인 무료 등 줄황속 충성도 높이기

경쟁 속 외식업계에 'VIP 멤버십' 바람이 강하다. 매장을 자주 찾는 VIP 고객들만 골라 기존 멤버십보다 더 많은 혜택을 쥐거줘 충성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남자친구와 패밀리레스토랑 빕스를 찾은 직장인 신수진(29)씨. 스테이크와 1인 샐러드바·와인 2잔을 먹고 마셨는데도 결제 금액은 단돈 1만4520원에 불과했다. 알고 보니 멤버십 서비스로 스테이크와 와인 2잔은 무료, 샐러드바는 50% 할인을 받아서다.

CJ푸드빌의 빕스는 올해 '빕스 스테이크클럽'을 신설하는 등 VIP 혜택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빕스 스테이크클럽'은 6개월간 스테이크를 7회 이상 주문한 고객들로, 기존 우수 고객 멤버십 프로그램인 '빕스 미니어'는 전년도 방문 실적이 5회 이상, 결제 금액이 3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 까다롭게 선정한다. 빕스 스테이크클럽 회원의 경우 스테이크 무료 식사권과 할인권, 와인 제공 등 통 큰 혜택이 따라붙는다.

최근 불고기브라더스가 출시한 '블랙 카드'는 새로운 VIP 마케팅을 겨냥하고 있다. 5만원짜리 멤버십 형태 카드로 발행일로부터 1년간 상시 20% 할인 혜택을 준다. 생일 기념 할인권과 음료 무료 제공, 자매 브랜드인 설곰탕브라더스, 철판&쪽대찌개브라더스 등에서 사용 가능한 무료 쿠폰북을 제공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25만원 상당이다.

썬앳푸드는 매드포갈릭 등 계열 브랜드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멤버십 카드 'S다이너(S Diner)'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VIP 고객은 무료 와인 코키지 서비스와 발레파킹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전효순기자 hyjeon@metroseoul.co.kr

어린이 초콜릿 '키즈트리'

롯데제과가 어린이를 위한 초콜릿 브랜드 '키즈트리'(KidsTree)를 론칭했다. 합성향가료를 사용하지 않고, 설탕 함량을 줄이면서 우유 함량은 높였다. 비스킷에 당근과 호박을 넣고 초콜릿을 씌운 '초코토끼와 오독오독당근호박', '초코토끼와 새콤달콤 블루베리치즈' 등 4종을 선보였다.

효모 발효한 '리얼크래커'

오리온이 기존 비스킷오 '버터크래커'와 '초코크래커'의 맛과 포장을 새롭게 바꿔 '리얼크래커'로 새롭게 출시했다. 천연 효모를 넣어 발효시킨 크래커로 텁텁하지 않은 깔끔한 맛과 부드럽고 담백한 맛을 살렸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네슬레 '― 아메리카노' 출시

커피믹스 시장 3위로 밀려난 네슬레가 다음달부터 '네스카페 수프리모 크레마 아메리카노'를 출시하고 인스턴트 원두커피 시장에 진출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네슬레의 신상품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주요 대형마트에 입점할 것으로 전해졌다. 설탕·크림을 빼고 원두의 맛은 살리면서 커피 거품인 '크레마'를 강조해 차별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AC닐슨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커피믹스 시장점유율에서 동서식품이 79.6%로 압도적 1위를 지켰고, 2위는 12.5%의 남양유업이 차지했다. 2011년까지 8.9%로 2위를 유지하던 네슬레의 점유율은 5.1%로 내려앉았다. /전효순기자

류현진 2선발 중책 맡는다

3일 오전 SF전 출격… 추신수 2일 오전 에인절스전 첫 경기

류현진

'괴물' 류현진(26·LA 다저스)이 메이저리그 개막전 2선발로 확정됐다.

다저스 구단 홈페이지는 27일 "오른손 검지를 다친 우완 채드 빌링슬리를 내신해 류현진이 팀의 두 번째 선발 투수로 출격한다"고 밝혔다.

돈 매팅리 다저스 감독은 검지 통증으로 빌링슬리가 커브를 완벽하게 던질 수 없다고 판단해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샌프란시스코와의 홈 개막 2연전 중 두 번째 경기에 류현진을 내세우기로 결정했다. 한국시간으로 다음달 3일 오전 11시10분이다. 전날 개막전은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가 나선다.

매팅리 감독은 14일까지는 4명의 선발 투수만으로 마운드를 꾸려갈 계획이다. 3·4선발은 조시 베켓·잭 그레인키로 결정했다. 류현진과 선발 경쟁을 벌이던 테드 릴리·애런 하랑·크리스 카푸아노는 불펜으로 돌렸다.

이후 빌링슬리가 가세하면 5인 로테이션 체제로 시즌을 운용한다. 또 그레인키의 팔꿈치 상태가 호전되면 그를 2선발로 기용할 계획이어서 류현진의 선발 순서는 바뀔 가능성이 크다.

한편 '추추 트레인' 추신수(31·신시내티)는 2일 오전 5시10분(한국시간) 홈구장인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아메리칸볼파크에서 LA 에인절스를 상대로 첫 경기[illegible]다.

신시내티로 이적해 중견수로 보직을 바꾼 그는 시범경기에서 타율 0.333(33타수 11안타)에 도루 3개를 기록하며 연착륙에 성공했다. 류현진과의 한국인 투타 맞대결은 7월 26~29일(다저스타디움), 9월 7~9일(그레이트아메리칸볼파크)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손흥민이 27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 "10호골·이적? 서두르지 않아"

카타르전 결승골의 주인공 손흥민(함부르크)이 독일로 떠났다.

손흥민은 27일 인천공항에서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9골을 넣었는데 적지 않은 숫자"라며 "10호골을 터뜨려야 한다는 부담은 갖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9일 소속팀 경기에서 2골을 터뜨려 정규리그 9호 득점을 쌓은 이후 5경기째 득점하지 못하고 있다. 한 골만 더 터뜨리면 차범근 이후 27년 만에 독일 무대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쌓은 한국인으로 기록된다.

그는 "아직 8경기가 남은 만큼 기회가 열려 있다"며 "팀을 옮기는 것도 함부르크와 계약이 2014년까지 남은 만큼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운동만 열심히 하면 에이전트가 좋은 틀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느긋하게 말했다.

/김민준기자

'하회탈' 차두리 "한국팬 사랑 서울행 결정"

수원 정대세 "맞대결 기대"

차두리(33·FC서울)는 사진가 행복을 찾기 위해 국내 프로축구에 입문했다고 밝혔다.

차두리는 27일 경기 구리의 GS챔피언스파크에서 열린 서울 입단식에서 "지금까지 나를 항상 응원하고 도와준 한국 팬들 앞에서 뛰는 게 기쁨이고 행복"이라며 "뒤셀도르프와의 계약에 끝난 후 은퇴를 고민했지만 독일 거리에서 만나는 한국 분마다 선수 생활을 더 하라는 격려를 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에 아버지(차범근 SBS 해설위원)의 조언은 전혀 듣지 않았다"며 "많은 분들이 서울의 마케팅 때문에 영입됐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운동장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대표팀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룸메이트로 지내기도 했던 최용수 감독에 [illegible] 부르기가 감독님이라고 부르려니 어색하다. 대화하지 않고 표정만 봐도 최 감독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고 친밀함을 드러냈다.

한편 차두리를 친형처럼 따르는 '인민 루니' 정대세(수원)는 [illegible] 서 '차두리 형이 서울에 입성하기를 바랐다. 그는 측면 수비수고 나는 최전방 공격수라 겹칠 기회가 많지 않겠지만 측면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서라도 맞붙어 보겠다"고 도발했다. /김민준기자

전술 부재 '최강희호' 총체적 난국

공격루트 단순·수비도 취약 – 남은 3경기 험난

"최강희호"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26일 카타르전를 지켜본 축구 전문가들은 "전술이 단조롭고 공격이 날카롭지 못했다. 과거 축구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용수 KBS 해설위원은 "카타르는 수비할 때 포백에서 파이브백으로 전환하며 두텁게 수비벽을 쌓았다. 하지만 대표팀은 수비벽을 깰 공격진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문선 교수 역시 "전술적으로 준비가 덜 돼 있었다. 공수 전환의 속도가 느려진 데다 연결감마저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후반 추가시간 손흥민의 결승골이 없었다면 한국은 카타르와 1-1로 비겼을 것이다. 이번 승리로 한국은 3승1무1패(승점 10)가 돼 한 경기를 더 치른 우즈베키스탄(3승2무1패·승점 11)에 이어 브라질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2위를 달리고 있다.

6월 4일 레바논(원정), 11일 우즈베키스탄(홈), 18일 이란(홈)과의 3경기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3위 이란(2승1무2패·승점 7), 4위 카타르(2승1무3패·승점 7)에 3점 차로 쫓기고 있다.

특히 레바논전이 중동 원정으로 펼쳐지고, 우즈베키스탄·이란은 강호여서 절대 안심할 수 없다.

/김민준기자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Day 14 How old are you? 나이

영어 통문장 익히기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당신은 몇 살인가요?
저는 21살이에요.
스미스 씨는 아직 50대예요.
당신 가족은 모두 몇 명인가요?
제 언니가 큰이에요.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How old are you?
I'm twenty one years old.
Mr. Smith is still in his fifties.
How many people are there in your family?
My sister is the oldest.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하기!

▶짧은 대화 훈련

문장 중에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말해보세요.

A John is not 60 yet, is he?
B I don't think so. I'd say Mr. Smith is 아직도 in his fifties.

정답 still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How old [are you / is she]?
2 I'm the [oldest / youngest]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의 서포트합니다.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 1000

01. The effective use of landscaping makes the difference between having a real garden and ______ a collection of plants.
(A) simple (B) simpler
(C) simplest (D) simply

02. By the time Clear Blaze Technology's word processing program goes on the market, software engineers ______ its remaining flaws.
(A) will have corrected (B) had been correcting
(C) are correcting (D) will correct

01. 조경의 효과적인 이용이 진정한 정원이 있는 것과 그저 식물들을 수집하는 것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정답 (D) simply

02. 정답 (A) will have corrected

Jump Up TOEIC Speaking

Part 1. Read a text aloud

어려운 발음 공략하기

1) q [kw] 발음하기

[w]			[kw]		
week	west	worry	quit	question	inquiry
walk	with	wonderful	quality	quick	quiz
want	wish	world	quiet	require	quarter

2) tr [tʃr]의 tr는 [츄]로 발음하기

tr [tʃr]		
train [츄레인]	track [츄랙]	transfer [츄랜스퍼]
trust [츄러스트]	try [츄라이]	tree [츄리이]
treasure [츄레저]	trial [츄라이얼]	trousers [츄라우저ㅅ]

런닝&캔버스 SALE
3.11(월) ▶ 4.14(일)
50%~
일부 품목 제외
CONVERSE SKATE 구매시
미니가방 증정
전 구매 고객
세탁서비스
포장서비스
트레포일 가방증정
온라인 쇼핑몰 한정이벤트
www.lesmore.com
클락스 브랜드 SALE 전품목 20~50